

3. 영호도회소의 군사활동

1) 순천·광양의 군사적 기반

1894년 음력 6월에 김갑규가 이임한 후 약 2~3개월간 순천에는 새로운 부사가 부임하지 않았다. 신임부사 이수홍(李秀洪)은 음력 8월에야 부임하였던 것이다.¹⁾ 따라서 공백기에는 영호도회소가 순천성의 관아를 장악하고서 치안의 임무와 폐정개혁을 수행하는 중이었다. 이수홍이 순천에 부임할 당시와 그 이후의 상황을 황현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수홍은 8월에 부임하였는데, 적 인배 등이 이미 관사를 점거하고 있으면서 관원을 대하기를 마치 죄인 다루듯 하였으므로 수홍은 비어 있는 관아에 거처하면서 순제를 내어 선비들을 시험하는 일로 소일하고 있었다. 백성들은 모두 그를 비웃었다. ... 이때 이르러 전주로 올라가다가 길에서 개남을 만났으나 가마에서 내리지 않았다. 개남은 이미 그를 껄뽀하게 생각 ... “내가 명령지를 내어 군수전 5만 냥을 징수할 때 너의 고을에서는 협조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이냐.”고 물었다.

수홍은 “제가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못은 김 접주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도인이 있고 관리는 없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십니까.”라고 대답하였는데, 대개 인배가 명령을 거절하였다는 것을 지목한 것이다. 개남은 못 들은 척하고 대곤(大棍) 30대를 때리고 감영의 옥에 가두었다.(헌역 오하기문, 272쪽)

이수홍이 부임할 당시 순천의 관아는 이미 김인배를 비롯한 영호도회소의 수뇌부가 장악하고 있었다. 도호부의 관아가 영호도회소의 활동 근거지로 이용된 것이다. 당시 관원들은 농민군의 눈치나 살피는 천덕꾸러기 신세였으며, 신임부사 이수홍조차 “도인이 있고 관리는 없다.”고 말할 정도로 순천지역은 농민군들이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순천과 지척의 거리에 있던 광양은 영호도회소와 불가분의 관계였다. 광양은 경상도 서부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영호도회소의 전진기지였다.²⁾ 영호도회소의 농민군들이 하동이나 진주로

1) 이수광, 『증평지』, 순천대 남도문화연구소, 1988, 66쪽.

2) 『동학100년』 27회, 『한남일보』, 1994. 7. 13.

광양지역 농민군 명단³⁾

지역명	직책	명단
광양·순천	수접주	김학식
섬거역	도접주	김갑이
	도집강	정홍섭
	동몽	조백원
	농민군	강관옥·강성화·김석준·김성이·김용수·김용이·김일선·김종진·김필수·나시돌·박만이·박영조·박치서·심이준·안정근·염동필·유연금·윤윤원·이현두·전소노미·정덕원·정득조·정이성·최경천·최학렬·홍정기
봉강	접주	박홍서
	접사	조두환
		김상득·박기문·주병서
사곡	접주	한군협·한진유
	농민군	강재만·김재원·하원준
옥룡	접주	서윤약·서형약·서통보·이중례·하중범
	동도괴수	변낙중·이경도
	농민군	김봉기·김차금·박계연·박종률·성통보·이관침·정경순
우장		강종오·김치서·이만수·이차겸·임수완·최득득
월포	접주	김명숙
인덕	접주	박소재·박치서·성석하
	농민군	강재윤·김두화·김백공·김순용·김종지·박일조·박치우·서달수·서성화·오분돌·오석곤·오창순·우암두·유우석·유수복·정재오·조군선·추성관
철성	농민군	김낙현·김원일·김필성·남상집·박동실·정문명

3) 「광양현포착동도성명성책·순천부포착동도성명성책·광양섬계역포착동도성명성책」(「잡책철」, 규장각 소장 도서번호 21970; 「학사등록」54, 국사편찬위원회, 1991).

진출할 때에는 항상 광양을 근거지로 삼아 섬진강을 건넜으며, 후퇴할 경우에도 반드시 광양으로 되돌아왔다. 그만큼 광양은 영호도회소의 경남 서부지역 진출의 요충지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광양의 농민군은 규모나 활동에서도 영호도회소의 주력부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광양지역은 1890년대를 전후하여 동학교인이 급성장하였다. 예를 들면, 광양 봉강 출신의 조두환(趙斗桓 : 1867~1935)은 20대의 나이에 광양 출신인 유수덕에게 동학의 도(道)를 전수받았다.⁴⁾ 특히, 보은취회에 가담한 광양의 교인이 많았다는 사실과 ‘시천주조화정(侍天主造化定) 영세불망(永世不忘) 만사지(萬事知)’라는 동학의 주문을 광양 사람이 지었다는 말이 경상도에 퍼져 있었다는 점도⁵⁾ 사실 여부를 떠나 역시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광양에서 경상도 서부지역으로 동학이 전파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서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집강소 활동기에 광양의 농민군과 하동 진주의 농민군 사이가 긴밀한 관계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한편, 광양 출신으로 영호도회소에서 활동하였던 농민군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봉강·인덕·사곡·옥룡·칠성·우장면의 접주와 성찰, 그리고 일반 농민군이였다. 특히, 섬거역의 경우에는 도접주 김갑이와 도집강 정홍섭 등을 비롯하여 수십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앞의 표에서 최후까지 항쟁하다가 체포·전사한 광양지역 농민군의 일부에 대한 출신지와 직책 등을 알 수 있다. 또한 광양지역 농민군들은 섬거역과 인덕·옥룡면 출신이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밖에 봉강면의 경우에도 이름을 알 수 없는 17명이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지역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광양지역은 읍치를 중심으로 네 방향의 어느 곳에서나 농민군이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동쪽의 섬거역과 우장면, 서쪽의 칠성, 남쪽의 사곡과 인덕, 북쪽의 옥룡 등이 그러하다. 옥룡 출신의 변낙중과 이경도의 활동에 대하여 「광양염문기(光陽廉聞記)」에서는 “갑오년 동도괴수로서 자칭 선봉장이라 하며 말을 타고서 영·호남을 횡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광양의 농민군들이 경남 서부지역 진출에 앞장섰음을 알 수 있다.

4) 허남호, 「고소암조두환씨를 추도함」, 『현도교회월보』279, 1935. 9, 37쪽.

5) 국사편찬위원회, 『추한일본공사관기록』1, 1991, 69쪽.